

농식품부, 보성·순창군 '맞손'... '살기 좋은 농촌' 만든다

내년부터 추진 농식품부 시범 사업 '농촌협약' 대상지 선정 보건·문화·응급 상황 대응 서비스 구축 등 국비 300억 투입

보성군과 순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시범 사업인 '농촌협약' 대상지에 선정됐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도입·적용되는 농촌협약 제도의 추진 대상 시·군으로 보성군과 순창군·임실군 등 9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농촌협약은 시·군 주도로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 방향을 수립하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단체장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투자해 함께 농촌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상향식 제도다. 30분 내 보건·보육 기초생활서비스, 60분 내 문화·교육·의료 복합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고, 5분 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 구축이 목표다.

농촌협약 시범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비 300억원씩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보성군과 순창군 등은 다음 달 농촌 공간계획과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5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보성 동부 생활권을 중심으로 부족한 기초생활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 중심·사람 중심·환경 중심의 농촌 만들기를 위해 생활거점과 농촌공동체 지원기반을 구축한다. 특히, 성공적인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공모 선정으로 추진되는 SOC 복합화 사업과 어촌뉴딜 300,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보성군 자체 사업인 보성 청년창업 프로젝트, 100원 택시·1000원 버스 등과 사업간 연계성을 높이고 신규 사업 공모에도 나서 정책 목표 달성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고 농촌인구의 생활 수준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 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농촌경제 활력 제고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군도 생활 SOC 시설 확충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설정하는 농촌생활권 전략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다. 순창읍과 인계·적성·유등·풍산·금과·말덕면 등 총 7개 읍면을 대상지역으로 정하고, 이들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 시설, 복지, 보건·의료, 보육, 문

화·체육 등 취약한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또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의 읍·면 소재지, 마을에 대한 점(點) 단위 투자에서 공간(面) 단위로 투자범위를 확대해 사업 간 연계·복합화를 통한 365생활권 조성할 방침이다. 순창군은 5년간 500억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주거환경 개선과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해 '살고 싶은 순창'으로 거듭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농촌협약 추진단을 구성해 지역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순창 균형 발전과 농촌 경제 및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순창=장영민 기자 jyng@kwangju.co.kr



'용기에 기른 산양삼' 남원시 선물용 화분 출시

용기에 산양삼을 심어 만든 선물용 화분이 출시됐다. (사진) 28일 남원시에 따르면 인월면에 소재한 향토기업 인월요업과 산나물협동조합이 개발한 '숨쉬는 인월 용기삼'이 지난 25일 남원시청에서 론칭 행사를 갖고 시판에 들어갔다. 이 화분은 지리산에서 재배한 4~5년생 산양삼을 용기에 심어 상품화한 것이다. 가정에서 화초처럼 기르다가 영양분이 뿌리로 모이는 겨울에 캐서 먹을 수도 있다. 용기는 그릇으로 재활용하면 된다. 지역 특산품인 지리산 산양삼과 용기를 융합한 아이디어 상품이다. 산양삼은 남원 산나물협동조합이 재배하고 용기는 향토기업인 인월요업이 공급한다. 가격은 3만~4만원대이며, 택배 방식으로 전국에 판매할 계획이다. 제품 개발을 주도한 양선도 남원 인월면장은 "지역의 특산품을 연계해 상품화한 것"이라며 "이들 특산품의 판로를 확대하고 지역을 널리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시 구룡동 정읍허브원에 보랏빛 라벤더꽃이 만개해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보랏빛 라벤더 향에 취해보세요"

정읍허브원, 총 33만㎡ 규모 라벤더 30만주 활짝

정읍시 구룡동에 보랏빛 라벤더꽃이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29일 정읍시에 따르면 구룡동에 조성된 정읍허브원 라벤더 관광농원에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인 라벤더꽃이 만개했다. 보랏빛 꽃이 만개하자 보기 드문 이국적인 풍경을 자랑하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물론 SNS를 중심으로 입소문을 타고 온 많은 이들이 라벤더 향기 속에서 인생 사진을 찍기에 여념이 없다. 정읍허브원은 총 33만㎡ 규모에 라벤더 30만주와 라반딘 4만 주를 심어 가꿔가고 있다. 이중 라벤더(6월 개화)와 라반딘(7월 개화)의 식재면적 부지는 7만3천여㎡로 약 30%를 차지한다. 이 곳에는 지난해 5월부터 식재한 34만여 주의

꽃들이 만개해 사방에 온통 보랏빛 장관을 이루고 있다. 정읍허브원은 단순히 꽃만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읍의 명소로 기억될 수 있도록 라벤더를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정읍허브원과 정읍시는 지난해 11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특산물과 연계한 상품개발과 정읍의 스토리와 특성을 담은 관광 상품을 개발 중이다. 정읍허브원은 모든 오일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라벤더오일을 이용한 체프프로그램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허브 추출물을 이용해 미스트나 목욕용품, 천연 화장품, 탈모샴푸 등을 생산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소득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농사철만 되면 흙탕물' 지리산 구룡계곡 남원시, 50억원 투입 정화사업 펼친다

남원시는 지리산 명소인 구룡계곡의 맑은 물을 유지하기 위해 '농사철 흙탕물 저감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농사철 농경지에서 구룡계곡으로 흘러드는 흙탕물을 걸러내는 침사지를 설치해 물을 정화하는 사업이다. 침사지는 내년까지 50억원을 투입해 구룡계곡 인근에 1만7070㎡ 규모로 설치한다. 인근에는 다양한 초목을 심고 편의시설도 설치해 주민과 관광객의 쉼터도 조성한다. 앞서 남원시는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을 맺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했다. 환경부와 사업내용 협의, 모니터링, 토지 매입 등 행정절차 이행, 토지 매입을 위한 주민 협의 등을 진행했다. 구룡계곡은 남원 주천면 육모정에서 구룡폭포까지 3.1km에 이르는 지리산 북서쪽 계곡이다. 이 곳은 '음력 4월 초파일이면 아홉 마리의 용이 하늘에서 내려와 노닐다가 승천했다'는 전설이 있으며, 맑은 물과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지리산 명소다. 남원시 관계자는 "구룡폭포의 맑은 물과 수려한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차질없이 사업을 마무리해 지리산 관광명소의 위상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지리산 명소인 남원 구룡계곡.

'익산 다이로움' 지역화폐 시, 특별할인 연말까지 연장

익산시는 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화폐인 '익산 다이로움'의 특별 할인을 10%를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익산시는 애초 이달 말까지 10% 특별 할인을 계획이었다. 다만,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린 구매 한도는 8월까지만 적용한다. 이후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이 이뤄지면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익산시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월 전북지역 최초로 충전식 선불카드형 지역화폐인 '익산 다이로움'을 출시했으며 5개월여 만에 가입자 6만명, 발행액 670억원을 돌파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 할인을 이어가기로 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꾸준히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

















